

“장흥 수문~고흥 녹동 연륙교 건설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책페스티벌서 백광철 장흥군의원 제안 총 10km 사업비 8000억원 소요...남해안 관광벨트 시너지효과도

전남 중부해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흥 수문-고흥 녹동간 연륙교 건설이 추진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책페스티벌 경연대회에서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정책제안을 통해 알려졌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차원에서 추진되는 연륙교는 장흥 수문~특량도~고흥 녹동간 총 10km 구간으로 국토교통부가 국도 77호선과 연계해 1단계(고흥 녹동~특량도)와 2단계(장흥 수문~특량도)로 나뉘

진행되며 사업비는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착공해 2030년 개통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도당 경연대회에서 백 의원은 이 연륙교가 건설되면 그동안 낙후지역인 전남 중남부권(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안선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상호 접근성이 좋아지고 농수산물 등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장흥수문~고흥녹동 연륙교 건설안



현재 장흥에서 고흥 녹동은 육로로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 100km인데 만약 이 해

상 연륙교가 가설되면 1시간 10분이나 단축돼 10분대(10km)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 고흥 녹동-장흥 수문간 연륙교가 가설되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 등 4개군은 지난 2016년 7월에 특량만, 강진만권 상생발전회를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 남도담사1번지(강진), 현대문학과가사문학(장흥), 차 문화(보성), 우주항공기지(고흥) 산업 육성발전에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의병 실제 밝히는 세미나 개최...300여명 참석

영암 의병의 실체를 밝히는 세미나가 지난 29일 영암군청에서 열렸다.

영암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 왕인실에서 전동평 군수, 조정기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과 의병장 후손, 각급 기관 단체장, 군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암 의병사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

세미나는 박해현 교수(조당대)의 ‘한말 영암 의병’, 조복전 회장(영암역사연구회)의 ‘임진왜변과 영암’을 주제로 한 발표와 오수열 교수(조선대 명예교수)와 이종범 원장(한국학호남진흥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세미나에는 영암 의병사를 최초로 정리한 ‘영암의병사연구’(영암문화원)를

공동 집필한 저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임진왜변과 영암’을 발표한 조복전 회장은 을묘왜변 때 의병을 일으킨 양달사 의병장이 조선 최초의 의병임을 주장하며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에 적극 참여한 영암의병들의 실체를 설명했다.

박해현 교수는 영암은 ‘호남 의병의 성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영암 의병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호남 창의소’라는 의병부대를 영암의 병들이 결성했고, 이것을 토대로 삼남의 의병과 ‘호남의소’라는 남도 최대의 의병부대가 영암국사봉을 중심으로 결성했다고 주장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강진군 마량 ‘북카페 전망대’ 카페 기능 추가 주민·관광객 다목적 휴게공간으로 거듭난다

강진군 마량면에 위치한북카페 전망대(사진)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카페의 기능을 추가한 다목적 휴게 공간으로 거듭난다.

강진군은 마량 마량에 국비 등 34억원을 투입해 2층 규모(189.3㎡)로 북카페 전망대를 조성하고 지난 4월 6일 마량 놀토수산시장 개장에 맞춰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북카페 전망대는 원통형의 유리로 둘러싸인 이색적인 해상 전망대 공간으로 개방 이후 군민과 출향향우들이 기증한 각종 도서 200여 권을 비치했다.

특히 탁 트인 남해안의 풍경을 바라보며 독서와 함께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주민과 마량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받아 왔다.

군은 개방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주민과 관광객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북카페 전망대를 차를 마실 수 있는 다목적 휴게공간

으로 기능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민간에 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위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관사회단체, 카페 운영자 등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탁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민간영역인 카페 운영에 대해 그동안 각계각층의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서남해안 최고의 관광수산물시장으로 떠오른 마량놀토수산물시장과 함께 북카페 전망대를 지역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



강진 로컬푸드 직매장 오픈... 본격 운영

이승욱 군수 등 1000여명 참석...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강진에 로컬푸드 직매장(사진)이 오픈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신선하고 안전이 검증된 농수특산물을 한자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강진군 강진농협과 파머스마켓에 문을 열었다.

개장식에는 이승욱 강진군수와 위생식균의회의장, 정옥태 강진농협장, 이흥목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상무, 군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었다.

직매장 운영으로 생산농가는 세척과 선별, 소포장과 실명마코드 부착 등을 직접해 진행한 후 판매로 유통마진을 줄였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240농가가 과일과 채소, 나물, 잡곡, 가공물류 등 220여 가지 품목 참여로 운영하

는 강진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든 상품 포장지에 생산자현황과 친환경인증표기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하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해 채소류의 안전성 검사비와 소분 포장제 등에 6억원을 지원했고 선진지견학과 전문교육을 마쳤으며 작부체계 개선 등으로 연중 신선채소 생산 공급과 함께 이미 일부 공급되고 있는 서울시 공공급식의 모든 품목에도 도전하게 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단순한 농산물 판매장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이 넘쳐나는 특별한 연결고리에 운영중점을 두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

영암군 ‘황토멜론’ 수출 본격화

대만·홍콩 등 40t

영암군의황토멜론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동평 영암군수,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오정현 농협 영암군지부장, 이재민 영암농주농협 조합장, 농협k멜론공선회원, 수출업체 관계자, 생산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 수출 출하식을 가졌다.

영암군은 그동안 농업을 고소득 생업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멜론, 무화과, 고구

마 등 영암 농산물에 대한 특성과 사업에 힘을 쏟아 왔다.

특히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클로레라농법 등 재배기술 도입과 공선회를 통한 공동선별 출하로 최상의 멜론을 유통해 왔다.

이번 대만과 홍콩 등에 수출 물꼬를 튼 영암농주농협 황토멜론은 k멜론공선회 35농가가 참여해 약 3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7월 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12회 40t의 물량을 수출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장흥군, 레드향·참다래 등 로컬푸드 활성화 박차

장흥군이 레드향, 체리, 참다래 등 로컬푸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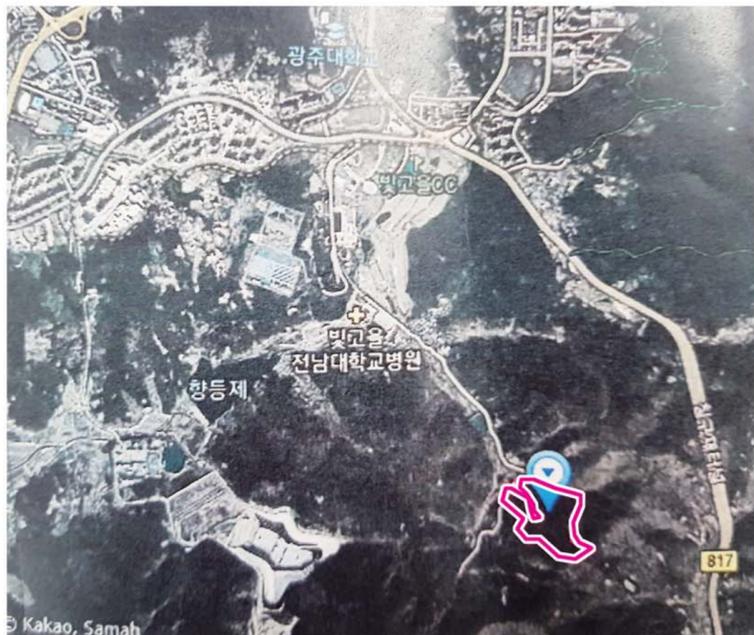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4일 참다래 작목회원 38명과 장흥군작목반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참다래 여름전정 기법 등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이 열렸다.

지역특화품목 현장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현장 컨설팅을 통해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지난 2월부터 7개 단체 330여명을 대상으로 레드향 재배기술과 접목실습, 체리 순지르기와 병해충관리,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 참다래 여름전정 기법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했다.

앞으로 오는 10월까지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작목반을 대상으로 주요 생육 단계에 적합한 재배기술 및 병해충 진단과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마지막, 600평 싸게 정리합니다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